

웹 게시판의 유형과 교사 답변이 학생의 대응 및 학습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김익중[○], 이재인[○]
거창창동초등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saedl@hanmail.net[○], jilee@cue.ac.kr

A study on the influences that different types of web bulletin boards and teachers' reply have upon the change of students' response and learning attitudes

Eig-Joong Kim[○], Jae-Inn Lee[○]
Geochang Changdong Elementary School[○],
Chinju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omputer Education

요 약

오늘날 아동들은 수많은 글을 올리고 읽으면서 웹 서핑을 한다. 어떤 글들은 웹사이트의 성격에 맞는 글인가 하면, 때로 대단히 공격적인 글들도 있다. 순전히 자발적으로 게시하는 아동들의 글에 교사가 의도적인 답변을 하면서 게시판에 오르는 아동들의 글을 조사하고, 교사의 답변에 아동들은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며,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아울러 웹사이트 게시판에 올리는 아동들의 게시물에 교사가 지속적으로 대응하여 학업성취도 변화 정도를 고찰하고 학습태도를 변화시켜 학업성취도가 향상되게 유인하였다.

1. 서 론

학교 급식비는 제 때에 못 내더라도 99%의 가정에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 물론 1인 1 컴퓨터 시대가 되어야 개인별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가족구성원들의 사용시간 분할로 전 가족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미 업무용과 학습용 용도로 별도의 컴퓨터를 보유한 가정도 있다.

컴퓨터 보급률이 이렇게 높지만, 일부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자녀들의 컴퓨터 활용 모습에 지나치게 민감한 스트레스 성 반응을 보이며 '컴퓨터 접근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한다.

아동들은 때로는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몇몇이 컴퓨터를 이용하는가 하면 때로는 부모 몰래, 잠자는 시간을 이용하여 이불을 덮어쓴 채 컴퓨터 모니터를 안고 있기도 한다. 이런 아동들에게는 컴퓨터가 이미 자신들의 분신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에서 웹사이트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알게 모르게 학생들에게 게시판을 개방하고 게시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홈페이지 활용 빈도가 높은 학교의 사이트를 둘러 본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될 경우, 자녀 학교의 웹 게시판에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한다. 웹사이트 게시판은 이미 많은 교사들이 과제 제시의 장으로 쓰고 있으며, 학생들 또한 담임교사에게 과제를 제출하는 방편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웹사이트 게시판은 이미 단순한 게시판으로서의 용도를 넘어서서 교사 - 아동간의 중대한 교량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웹 게시판의 유형과 교사 답변은 아동의 대응 및 학습태도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임이 분명한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6T 시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시대라 하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6T 시대일 것이다.

그 첫째가 IT(Information Technology)로서 정보기술이요, 이를 기반으로 하는 IT 산업은 점점 상승세를 맞고 있다.

둘째는 BT(Bio Technology) 즉 생명기술인데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물질인 EPO라는 빈혈치료제는 이 지구상에서 개발된 어떤 물질보다도 부가가치가 높은 물질이며 1g에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

셋째로 NT(Nano Technology)를 들 수 있는데, 역시 탄소나노튜브라는 물질은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높다.

넷째로, 일반적으로 접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CT(Culture and Content Technology)를 들 수 있겠다. 이는 문화산업으로 표현되는데, '슈라기공원' 같은 제품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린 CT의 대표적인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ET산업이 있다. Environment로서 환경과 관련된 산업이며, 이를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이 바로 환경오염 예방기술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여섯째로 들어볼 수 있는 것이 ST 산업인데, Space Technology로서 우주항공기 개발 기술이다. 이 또한 높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앞으로 주력해야 할 산업이다.

2.2 컴퓨터와 학습

이런 6T 산업이 선도해 나가는 오늘, 우리 인간은 컴퓨터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으며 그 컴퓨터의 효용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학습활동이다.

한 사람의 활동으로 한 사람이 먹고살았던 농경사회에서 한 명이 N명을 먹여 살리게 된 산업사회를 거쳐, 오늘날은 한 사람의 활동이

N2 명을 살리고 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 세 사람의 재산은 놀랍게도 가난한 국가 48국의 재산보다도 많다는 사실이며, 그 부자들은 6T 시대에 걸맞은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컴퓨터 학습 중에서도 이제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양방향 학습시스템이 아니고서는 주목을 끌지 못한다. 양방향 시스템에서 시공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뭐니 뭐니해도 대화방이겠지만, 대화방에서의 학습은 즉시성은 뛰어나나 기록으로 남기기가 불편하다는 점이 있다. 이런 대화방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운영자와 사용자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자 오늘날 웹 운영자들이 주로 쓰고 있는 게시판 형태이다.

웬만큼 컴퓨터를 하였다든 사람들은 거의 자신의 홈페이지를 갖고 있으며,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자신이 만든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사이트에서 만든 카페 형태의 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홈페이지 관리에 바쁘게 되고, 운영자의 답변이 없는 게시판은 좀처럼 다시 손이 가지 않을 것이다. 웹 접속을 않으면 당연히 게시판 접속은 뜸해지게 마련이다.

2.3 웹과 게시판

게시판 중에 으뜸으로 먼저 선보이는 것이 방명록이다. 방명록을 통해 접속자는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며 운영자에게 시위를 한다. 운영자는 부담 없는 접속자인가 아닌가를 살피고, 답변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아가 좀 더 양방향으로 발전된 형태가 일반게시판이다. 웹사이트 자동생성 사이트에서 만들어 주는 게시판은 사용자 선택 영역이 많지 않다. 호스트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되는 부분은 아예 문을 잠그고 사용자들의 조작을 막기 때문에 세밀한 조작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엄청난 잠재 수요를 인식한 대기업

들의 개인 사용자에게 대한 웹사이트 공간 제공으로 인해 이제는 개인 사용자들도 그런 불편에서 벗어나 맘껏 CGI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4 보드 선택

대부분의 사이버공간 제공 업체들이 웹 서버에서의 CGI 기능 제공을 꺼리거나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사용자들은 스스로 서버를 구비하고 공인 IP를 얻거나, 아니면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CGI 기능이 제공되는 웹호스팅 업체를 찾아, 흔히 보드라 일컬어지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게시판 기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스스로 보드를 만들어 쓰면 오죽 좋을까만, 그야말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성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 기능상 개인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부분이 각각 다르다.

기능 점검이나 유지 보수, 또는 수정시에는 사용자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제공되는 함수나 기타 기능도 충분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건으로 들 수 있는 것이 경제적 부담이다. 아무리 성능이 우수하다 해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그림의 떡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약간 비약적인 비유이겠지만, PC보다도 수천 수만 배는 성능이 우수한 슈퍼컴퓨터를 개인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없는 까닭이 무엇인가? 바로 경제적인 부담 때문인 것이다.

2.5 운용 능력

웹사이트 운용자라면 최소한 보드를 설치하는 기본 작업은 할 수 있어야 한다. 각종 옵션을 세팅하고 웹서버에서 구현되는 최후의 순간까지, 한 순간의 방심도 용납되지 않으며, 그 오류는 바로 제3의 개인 사용자들의 접속시 에러로 연결될 수도 있다.

게임 매니아나 태그 매니아들은 각종 현란한 테크닉을 동원하여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는 버그를 자신들의 작품인양 웹사이트 공격에 사용하기도 하며, 성인용 음란정보 제공업자들은 수시로 각종 음란게시물을 게시하여 운영자가 혼돈에 빠지게 한다. 그럴 때에 운영자에게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이 없다면, 그 사이트는 그 순간 죽은 사이트가 되고 마는 것이다.

때로는 등록되는 게시물을 제한해야 하고, 때로는 게시물에 걸린 스크립트로 인하여 엉뚱한 사이트로 링크되는 현상으로부터 웹사이트를 보호할 수도 있어야 한다. 요즘은 게시물을 여는 것과 동시에 음란사이트에 직결되도록 하는 게시물들이 매일 몇 편씩 게시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순진한 학생들이 보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그런 게시물들도 무조건 삭제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3. 웹 게시판 구현운동 및 분석

3.1 에듀모아

앞에서 게시판 설치를 위해 CGI 구현이 가능한 웹서버를 선택하고 테크노트를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연구자 소속학교의 웹사이트 게시판을 그대로 쓰기로 하였다. 에듀모아에서는 마침 전국적인 사용자 망 구축을 위해 대상학교를 물색 중이었던지 2002학년도에 창동초등학교에 담당자가 와서 흔쾌히 학교 홈페이지를 무료로 구축해 주겠노라고 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학교 홈페이지는 운용 중이었으며 여러 게시판도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가 꾸민 홈페이지라 어딘가 미흡한 듯 하여 대규모 웹서버를 보유하고 웹 공간을 제공하는 에듀모아의 노하우를 믿고 맡기기로 하였다.

학교 홈페이지는 한 달 안에 당장 구축이 되었다. 2002년 초, 엄밀하게 말하자면 2001년 말 경에 구축되었다. 연구자가 본 대학교 대학

원에 입학하던 시기였다. 본 연구와 상관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그렇게 구축된 학교 홈페이지와 게시판 운영이 이런 연구결과로 빛을 보게 된 것이다. 2002학년도에 연구자는 6학년 담임을 맡았고, 컴퓨터 활용 능력과 욕구가 대단했던 담임학급의 아동들은 웹사이트에 게시판 이용에 대한 담임의 요구를 하나 빠지지 않고 다 들어 주었다. 2002학년도에만 하더라도 연구를 위한 게시판 사용이 아니었으므로 교사는 가끔 아동들의 글을 확인하고 리플을 달아 주었으며, 아동들 또한 리플에 대한 욕구를 크게 보이지 않았다.

3.2 웹 게시판 운용

2003학년도, 드디어 한 가지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연구를 해야만 되었다. 물론 연구과제 부여는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부여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연구자는 연구과제를 선택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고, 웹 게시판에서 교사 - 아동간에 이루어지는 답변을 통해 학습태도 변화가 올 것인가 라는 연구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새롭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분야는 아니었지만, 게시판을 통한 교사와 아동의 만남에서 학습효과를 올리기 위한 뭔가가 나올 것 같아서였다.

학교 웹사이트에 부속돼 있는 학급 홈페이지는, 2003학년도를 맞으면서 학교 홈페이지의 개편작업에 들어가는 관계로 3월 25일에야 정상 운영에 들어가게 되었다. 역시 에듀모아에서 제공하는 무료 공간이었는데, 학생들이 사용하게 되는 월 3,300원의 유료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무료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무료로 제공되는 부분만 하더라도 방대한 양의 정보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효용가치가 있는 터였다.

학급 홈페이지 게시판은 모두 다섯 개였다.

첫째,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자료실' 기능의 게시판이다. 3월 25일에 시작한 자료실 게시판은 담임교사를 포함하여 34명밖에 안

되는 인원인데도 현재 2643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하루 평균 10개가 넘는 게시물이 자료실에 올라온 셈이니, 학생들이 3일에 한번은 자료실에 들른 셈이다. 게시된 내용은 주로 그래픽 관련 자료들이 많았고, 태그 종류가 그 다음, 그리고 애니메이션 자료가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 게시판으로 가야 맞다싶은 게시물도 많긴 하지만, 교사-아동간의 대화의 장으로 마련한 게시판이니 만큼 게시물의 내용에는 별 제한을 두지 않았다.

둘째로, '선생님 저~기요' 게시판.

제목에서 보듯이 온갖 잡다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면서 수다 떨 수 있는 공간이다. 이 게시판 또한 아동들의 흥미에 부합하는 곳이었던지 게시물이 1643개나 올라와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게시판을 설정하였는데, 아동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가 부담스러웠는지 비밀의 방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하였다.

셋째, 그래서 만든 게시판이 '비밀이에요 선생님' 코너다. 교사는 학급아동 모두의 상담실 게시물을 읽고 답할 수 있지만, 아동들에게는 자신의 글과 교사 답 글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글 쓰기 권한은 담임이 속한 반의 아동들에게만 부여하였는데, 그렇게 한 결과 아동들이 이 게시판에 접속하는 순간, 담임교사와 1:1로 만나 상담을 하는 듯한 모양을 갖게 된 것이다.

2학기 시작과 더불어 개설된 상담게시판엔, 여타 게시판에 수시로 자신의 의견을 쓸 수 있기 때문인지 게시물의 수는 별로 많지 않았다.

넷째, 학급 어린이들의 생각에 따라 만든 '칭찬합시다' 게시판. 이는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아동들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흥내내 생각한 것 같은데, 칭찬 받는 아동들은 거의 정해져 있었다.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도 열 손가락 이내의 아이들 이름만 주로 거론되었으며, 그 외 극히 일부의 아동 이름이 칭찬 대상으로 오르긴 했으나, 이어지는 호응이 없었다.

그리고 칭찬하는 내용에 있어서 공공질서나

사회정의 실천 등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없고,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에게 학용품을 빌려 준 경우, 청소를 도와 준 경우, 양호실에 같이 가 준 경우, 우는 친구를 달래주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의견 중에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하기 때문에 칭찬하고 싶다는 글도 있었다. 이런 의견은 교사나 친구들의 차별대우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친구의 좋은 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친구의 언행을 자세히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아동들의 관찰력을 기르게 되리라는 의도로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구성했지만, 칭찬을 하는 아동이나 받는 아동들의 이름이 거의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원래 의도된 목적은 제대로 달성되지 않았다.

다섯째 게시판으로 '내 아를 나~도' 코너.

이 게시판의 이름 역시 텔레비전 코미디 코너에서 유행하는 구절을 따 온 것이다. 이런 구절은, 텔레비전 전파를 통해 널리 퍼지지 않았다면 결코 사용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하다. 경상도식 사랑 표현이라고들 받아들이고 있지만, 막상 생각하면 아주 저속한 표현인 것이다. 어쨌든 아이들이나 웹사이트 접속자나 아무 거리감 없이 받아들여주고 있기에 그냥 게시판 이름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의미상으로 보자면 '사랑한다 친구야' 정도 되는 셈이지만, 아동들이 자신들의 생활에 관한 모든 것들을 내용으로 글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 아를 나~도' 코너 역시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게시물의 수가 상당하다. 그러나 자료실이나 '선생님 저~기요' 코너와는 비교가 안 되는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521건의 글이 올라와 있다.

비밀상담실을 제외한 4개의 게시판 가운데 '칭찬합시다' 코너의 게시물 수가 429개로 가장 적다. 이를 분석해 보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데 매우 인색하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학급홈페이지 게시판 4개에 연간 오른 게시물 숫자가 별다른 보상을 하지 않았는데도 5,300여 건에 달한다는 것은, 교사 - 아동 사

이에 이어져 가는 '교감' 덕분이란 것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3.3 웹 게시판 관리

게시판에 오르는 글들은 모두 교사가 완전히 읽고 소화를 했으며, 그것을 토대로 아동들에게 답 글을 올렸다. 처음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연구자의 답변에 기뻐하며 글을 올리던 아동들이, 횡수가 반복하게 됨에 따라 교사의 의도에 이끌려 차츰 답을 기다리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학급 홈페이지 개설 이후 6개월 여, 연구자는 매일 올라오는 아동들의 게시물을 읽고 답변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들여야 했다. 근무 시간 중에는 절대로 답을 올리진 않는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려니 당연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 시간에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 정도까지, 매일 반복되는 아동들의 게시물에 대한 답변 시간은, 정말 장거리 마라톤과도 같은 것이었다.

연구자의 학급 게시판에 기록되는 게시물의 숫자가 연구자 근무교의 다른 17학급의 연간 게시물들을 모두 합한 것 보다 더 많았는데, 동료교사 중에는 게시물을 늘이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기도 하였다.

게시물 관리를 위해 연구자가 취한 행동은, 아동들의 게시물에 꾸준히 답변을 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이었다. 게시물을 많이 올렸다고 한 번도 보상을 하지 않았으며, 게시물을 올리진 않는다고 질책을 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학급 구성원 중에서 인터넷이 가능한 아동들은 앞다퉈 게시물을 올리고 연구자의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답변이 뜸해지면 처음엔 답변 없다는 글을 올리고, 2~3일 계속 답이 없으면, '선생님 바쁘세요?' 하고 묻는가 하면, '선생님 어디 아프신가봐요?' 하며 염려를 보이기도 하였다. 교사 아동의 교수-학습 활동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가 서로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라고 보는데,

학급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한 연구자의 방법은 그런 면에서 대단한 효과가 있었다.

최근에는 학급홈페이지의 게시판에 들렀다가 자신의 글에 답변이 없음을 알고는 '선생님, 기운이 쪽~ 빠져요'라고 할 정도로 아동들은 게시판을 통한 교사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 삭제

당연히 교사의 삭제 대상이 되는 글도 많이 올라왔다. 글 쓰기는 등록된 회원들에게만 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외부인들의 유해한 게시물은 없었지만, 학급에서 튀는 아동들이 올리는 글은 교사가 일일이 지워야만 했다. 특히 별다른 의미도 없이 태그만 잔뜩 늘어놓는 게시물이나, 자신의 동호회를 광고하는 글, 친구를 비방하는 글, 내용이 한 줄 밖에 안 되는 글 등은 예고 없이 지웠는데, 그렇게 지워진 글의 숫자도 상당히 많다.

반 아동 중에서 하루에 8시간을 컴퓨터와 보내는 한 아동은 인터넷의 나쁜 영향을 많이 습득한 경우인데, 저속한 어휘들을 어떻게 배웠는지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지속적으로 그의 글들을 지우느라고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궁여지책으로 쓰는 3줄도 안 되는 글은 올리지 말자, 금방 글을 쓰고 또 쓰고 싶으면, 수정하기에서 쓴 글을 고쳐서 더 길게 쓰자. 괜히 게시물 숫자만 늘어나게 게시판마다 돌아다니며 글 한 편씩 올리지 말자 라고 하며 아동들에게 주의를 지속적으로 하였지만, 자신의 글 숫자가 늘어나는 재미를 알았음인지 몇 아동은 여전히 게시판마다에서 글 쓰는 일에 대해 아주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3.5 게시판에 대한 아동의 태도

학급 홈페이지 게시판이 개설되었더라도, 쌍방향성이 아니면 아동들은 글을 잘 올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교

사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또한 자율성이 결여된 게시판에는 글을 잘 올리지 않고 게시물에 대한 탐색시간을 더 늘이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선생님으로부터 답 글을 받아 읽을 수 있는 코너, 혼자만의 넋두리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코너나 게시판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훨씬 호감도가 높았다.

먼저 교사에 대한 예의에서 학급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학급 게시판이 있으니 반드시 글을 등록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글을 올리지 못했을 때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가지는 아동의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게시판의 이름을 보고 무슨 글을 올려야 하느냐로 고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한 두 아동의 질문성 게시물에 대한 교사의 답변으로 그런 고민은 이내 해결되었다. 그렇게 게시판의 성격을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는 게시판 이름을 바꿔달라는 요구를 해 왔다. 성격이 자신들의 욕구에 맞지 않는다는 거였다. '선생님 저~기요'의 경우도 그랬는데, 처음 그 코너의 이름은 '와글와글'이었다.

3.6 게시판 운영의 금기사항

학급홈페이지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아동들에게 몇 가지 금기사항과도 같은 조건을 두었다.

첫째, 반드시 높임말로 쓸 것.

반말로 글을 쓰면 자신도 모르게 글을 읽는 상대에 대한 존경심을 잊게 된다.

둘째, 특정 상대가 없을 때는 무조건 담임 교사에게 쓰는 편지글로 생각할 것.

학년초엔 어느 학급이든지 아동들이 전 담임을 못 잊어 방황하게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올바른 학습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급 내 질서 유지와 생활지도를 위해 모든 게시판을 생활지도의 장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저변에 깔린 것이었다. 교사의 의도된 교육활동이라야 수반되는 효과도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도를 알 리 없는 아동들은 교사의 유도에 잘 따라왔으며, 모든 게시판 활동은 교사-아동의 1:1 통신교육의 장으로 활용된 것이다. 그 덕분인지 비밀상담실에 상담을 원하는 아동들의 글은 9월에 '비밀이에요 선생님' 코너가 생긴 이래 단 73건 밖에 올라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 비밀상담실에 등록된 글들도 내용만 보자면 일반 게시판에 올려도 상관없을 정도의 내용들이다. 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보이기 싫어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으며, 이미 교사와의 사이에 형성된 유대감으로 인해 의견교환을 생활화하기 시작한 아동들은 비밀 게시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호감을 보이지 않았다.

더러는 친구들과의 경쟁심에서 학급 게시판에 들러 단 한 줄의 글을 쓰고서는 답임의 답변이 없다고 재촉만 하는 아동도 있었으나 그런 1회성 게시물을 쓰는 아동들은 더 이상 접속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게시판에 올리는 글은 반드시 3줄 이상 올리도록 하였으며, 한 곳 이상 게시판에 글을 등록할 때는 모니터 화면에 가득 차지 않은 글들은 '수정' 메뉴에서 수정을 하여 기록하고 싶은 내용을 추가로 쓰게 하였다.

4. 결론 및 제언

3월 25일 학급게시판을 게시판용 연 아래 수업시간에 발표를 잘 하지 않던 아동들의 글이 더러 눈에 띄기 시작했다. 발표의욕은 있으나 외향적이지 못한 성격 탓으로 남 앞에 나서기가 두려운 아이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 올리는 횟수가 다른 아동들보다 많았으며, 학부모님의 제재로 인해 컴퓨터 사용이 자유스럽지 못했던 아동들은 게시판 글 등록을 자신들의 컴 운용시간 확보의 좋은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컴퓨터가 있어도 인터넷 접속이 안되던 가정의 아동들은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인터넷 접속을 부모님께 요구하게 되었으며, 컴퓨터가 있는 가정의 아동들 중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 접속을 하고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컴 능력이 우수한 한 아동의 지도 덕분에 학급의 많은 아동들이 태그를 공부하게 되었으며, 태그를 일부 익힌 아동들 중에서는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구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애니메이션 공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카피해서 나눠 준 결과 아동들의 끊임없는 학구의욕은 이내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게시판에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 중에 연구자는 좀 더 나은 컴퓨터 환경 구현을 위해 노트북을 구비하였으며, 그를 이용해 최신 유행하는 영화들을 학급활동 이외의 시간에 보여주어 아동들과의 밀착된 유대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아동들은 교사의 모든 교육활동에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 따라왔다.

학교 내 위험시설을 일요일에 마음대로 만진 아동에 대한 체벌로 인해 한 학부모가 학교 당국에 항의전화를 하기도 했지만, 그 문제는 이내 학부모가 정확한 실상을 알게 됨으로써 해결되었으며, 학생-교사간 유대감은 더욱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컴퓨터에 들이는 시간으로 인해 학습목표 도달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우려도 하였지만 학년초 교과학업성취도평가 도달율보다 12월 학력평가에서 전 교과 평균점수가 10점 이상 높아진 걸로 봐서 학급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을 통한 교사의 지속적이고 변함 없는 답변은 아동의 학습태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은 학부모님들의 컴퓨터 및 인터넷 환경 사용 제한으로 한 번도 학급홈페이지 게시판에 접속을 하지 않았다. 그러한 경우, 수업시간이나 쉬는 시간의 교사와의 조우 이외에는 의사소통의 기회가 없어 긴밀한 유대감 형성에 애로가 있었으며, 소통이 이루어지는 아이들과 그들의 사이에 부드럽지 못한 하나의 갭이 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차츰 해소해 나

가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학부모님들 또한 길으로는 인터넷과 컴퓨터 전반에 걸친 지식 습득의 기회로 생각하고 호감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으나, 내심 학생들의 교과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지 염려하는 분위기도 더러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은 교사-아동의 유대관계 개선이야말로 학습 목표 도달을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임을 학부모 계도를 통해 홍보해 나가야겠다.

수행평가와 서술식 평가의 등장으로 인해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의 학업성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평가보다는 사실 학원의 평가결과를 자녀들의 학력 실태를 저울질하는 척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수치화 된 성적 현황과 석차까지 제공하는 연구자의 방침으로 인해 본 연구까지도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보는 것 같다.

상위권 성적을 형성하는 아동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하위권의 학생들까지 자신의 수치화 된 성적 현주소를 파악하게 되어, 내 자녀가 가장 우수한 학생이 아닌가 하는 환상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앞서가는 아동들은 게시판의 유형이나 교사의 답변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하였고, 하위권 아동들 역시 교사의 답변과 상관없는 반응을 주로 게시판에 썼다. 그러나, 학력평가 결과, 성적 중위 그룹을 형성하는 아동들의 경우에는 또래들의 행동과 교사의 답변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에 매우 서운해하기도 하였다.

끝으로 특별한 한 아동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결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학업성적이 최하위권인지라 친구들에게 별로 인기는 없지만 담임인 연구자와는 정말 밀접한 유대관계를 이어가는 아동이다. 자신보다 나은 아동들을 대하는 교사를 원망하지 않으며, 그들을 시샘하지도 않는다. 어느 무엇으로도 자신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면서도 능률하게 남자다운 기상을 보이면서 교사 앞에 나타나는 녀석을

보면서, 교사와 아동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끈끈한 정으로 맺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한없이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게시판을 통한 의견 교환이야말로 최고의 교육효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요 방법이라 사료된다.

5. 참고문헌

[1] 임성환, “학교전산망을 이용한 Web 상담실 모델의 구현”,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년, 석사학위논문.

[2] 박일중, “웹 메일을 활용한 쌍방향 학교 상담시스템의 설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년, 석사학위논문.

[3] 선지현, “웹을 이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발”, 아주대학교 대학원, 2001년, 석사학위논문.

[4] 서현진, “웹 기반 학습에서 학습자의 초인지수준과 메뉴유형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년, 석사학위논문.

[5] 강유정, “홈페이지 디자인에 있어서 색채 특성의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 국내의 대학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년, 석사학위논문.